# 코로나바이러스 패닉의 허구성을 지적하는 10 명의 전문가

1. Scott W. Atlas (MD)는 스탠포드 대학교 후버 연구소의 David and Joan 선임 연구원이자 스탠포드대학교 메디컬센터의 전 신경영상의학과장입니다. 그는 코로나 19 에 대해 미 상원에 서면으로 증언한 바도 있습니다.

2020 년 5 월 6 일에 그가 한 말:

> 우리는 이미 시행된 가혹하고 독단적인 정책으로 인해 훨씬 더 시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19 를 "어떤 희생을 치러더라도" 치료하겠다는 결의로 인해 다른 의료 서비스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며, 세계적 빈곤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엄청난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막대한 건강 참사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
> 현재 유럽, 일본 및 미국의 여러 연구에 따르면 전반적인 치명률은 초기 추정치보다 훨씬 낮으며 아마도 0.1 ~ 0.4 % 미만, 즉 극도의 격리조치를 촉발시켰던 추정치보다 10 ~ 40 배나 낮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증거에 기반하여 이 질병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를 먼저 보호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사망 위험이 사실상 없으며 심각한 질병의 위험도 별로 없습니다.

https://www.hsgac.senate.gov/imo/media/doc/Testimony-Atlas-2020-05-06.pdf

2. Sucharit Bhakdi 박사는 미생물학 전문가입니다. 그는 마인츠(Mainz)의 요하네스 구텐베르크 대학교 (Johannes Gutenberg University) 교수이자 의학미생물학 및 위생연구소 소장이며 독일 역사상 가장 많이 인용된 연구과학자 중 한 사람입니다.

2020 년 3 월에 그가 한 말:

[정부의 코로나 19 대책]은 기괴하고, 터무니 없으며 매우 위험합니다.

수백만 명의 기대 수명이 단축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에 대한 끔찍한 충격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존을 위협합니다. 의료에 대한 충격도 막대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환자에 대한 손길이 이미 줄어들고, 수술이 취소되고, 개업의원들은 텅텅 비고, 병원 직원은 줄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사회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모든 조치는 아무런 실체가 없는 것에 근거하여 자멸과 집단적 자살 행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JBB9bA-gXL4

3. Wolfgang Wodarg 박사는 폐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독일 의사이며, 정치인이며, 유럽의회 의장을 역임한 사람입니다.

2020 년 3 월 2 일에 그가 한 말:

코로나에 대한 과대포장은 실제의 어떤 특별한 공중 보건 위험에도 근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방대하고 정당하지 않은 검역 조치와 제한을 통해 우리의 자유와 개인적 권리에 상당한 피해를 줍니다. 각종 매체에 등장하는 이미지들은 무시무시하고 중국 도시들의 교통은 임상 온도계에 의해 통제되는 것 같습니다.

독감철에는 대체로 1,000 명당 1 명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클리닉 및 의료 외래 환자 클리닉에서만 PCR (유전자 증폭) 검사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면 이 사망률은 무서운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왜냐하면 거기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냥 집에서 회복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일반적으로 훨씬 더 악화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선택 치우침의 역할은 중국과 다른 곳에서는 무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검사를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약간의 "독감 유사" 감염만 있어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탐지될 위험은 7 %-15 %입니다. 2005 년부터 2013 년까지 스코틀랜드에서 전향적 ARI 바이러스 모니터링에 따르면 급성 호흡기 질환의 가장 흔한 병원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리노바이러스, 2.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 3. 인플루엔자 B 바이러스, 4. RS 바이러스 및 5. 코로나바이러스.

오늘날 PCR (유전자 증폭) 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게되면 쉽게 모든 매체에서 볼 수 있듯이 환자의 일상생활과 주위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https://www.wodarg.com/2020/03/02/to-stop-the-corona-panic-isolate-alarmists/

2020 년 5 월 2 일에 그가 한 말:

SARS-CoV-2 PCR (유전자 증폭) 검사: 특이적이지 않으며, 의학적으로 쓸모 없고 불안만 유발함

코로나 19 발생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SARS-CoV-2 PCR (유전자 증폭) 검사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이것이 이 바이러스를 측정하고 새로운 확산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나의 평가는 2 월말 이후에 바뀐 적이 없습니다: 독일 과학자들이 설계한 SARS-CoV-2 바이러스에 대한 PCR (유전자 증폭) 검사가 없었다면 코로나 "역병" 또는 심지어 "대유행병"은 발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그것을 권고한 후 ("의료 진단 목적이 아님"), SARS 바이러스 잔재를 찾기 위해 독일 각지에서 이 검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전세계적으로 변화하고 퍼져온 박쥐, 개, 호랑이, 사자, 집고양이 및 인간의 다양한 SARS 바이러스에 대해 양성으로 밝혀진 검사가 어떻게 이제 단지 4 개월이 된 SARS-CoV-2 만의 탐지에 특이적이라 불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어쩌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양성판정은 항상 무시무시한 것이며 감염이 된 사람과 그것에 책임있는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이미 정해진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광범위한 검사, 인공호흡문제에 대한 집착, 코로나 19 피해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병의원이 텅비어 버리는 현상 및 누구를 살릴 것인가에 대한 환자 등급화가 패닉을 초래했고, 그래서 이런 것으로 강력한 협박을 받는 사람들은 무조건 복종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WHO 외에, 공포조성자는 과거에 이미 내가 알고 있던 바로 그 일부 바이러스 학자들입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불행히도 오늘날 의료 기관의 모든 곳에서 이미 "새로운 정상상태"를 점하고 있으며 제약산업이나 다른 투자자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내가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교적 무해한 병원체로 어떻게 이러한 공포 시나리오를 만들어 낼 수 있는가? 어떻게 비판자들은 쉽게 입을 닥치게 되고 대중의 두려움은 미디어에 의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가?

이 역병의 위험은 과학적 사기극의 도움 덕택에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베를린에서 나온 부적합한 하나의 검사가 전세계의 치명적인 소동을 일으킨 구실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실수의 결과로 많은 지역에서 비상 사태가 선포되었으며, 모두가 역병의 탓으로 돌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비즈니스와 정치 분야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나게 이용하고 있는 바로 그 공포의 파도를 만들어 내고 있는데, 이러한 공포는 우리의 기본권 조차 파묻어 버리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https://www.wodarg.com/covid-19-medical-detectives/medical-detectives-english/

4. John Ioannidis 박사, 스탠포드 의과대학 의학, 보건 연구 및 정책 및 생의학 데이터 과학 교수.

2020 년 3 월 17 일에 그가 한 말:

현재의 코로나 19는 1 세기 한 번 있을 유행성 독감으로 불려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한 1 세기에 한 번 있을 그런 증거 조작극일 수도 있습니다.

일반 미국인들의 이 질환 치명률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치는 0.05 %에서 1 %로 다양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범위는 이 대유행병의 심각도와 대처 방법에 크게 영향을 줍니다. 인구 전체의 질환 치명률인 0.05 %는 계절 독감보다 낮은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치명률이라면, 엄청난 사회적, 재정적 결과를 초래하며 이렇게 전세계를 봉쇄하는 것은 전혀 비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코끼리가 집고양이에게 공격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좌절하며 고양이를 피하려고 하던 코끼리가 실수로 절벽에서 떨어져 죽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딘가에 돌아다니던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해 그냥 모르고 지나갔다면, 그래서 PCR (유전자 증폭) 검사로 개인을 검사하지 않았다면, 올해 "인플루엔자 유사 질병"으로 인한 총사망자 수는 여느 때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기껏해야 이번 시즌 독감이 평균보다 약간 더 나빠 보인다고 우리는 우연히 언급할지도 모릅니다.

https://www.statnews.com/2020/03/17/a-fiasco-in-the-making-as-the-coronavirus-pandemic-takes-hold-we-are-making-decisions-without-reliable-data/

5. Pietro Vernazza 박사는 Cantonal Hospital St. Gallen 의 감염병 전문 스위스 의사 겸 보건 정책 교수입니다.

2020 년 3 월 22 일에 그가 한 말:

우리는 이탈리아에서 나온 믿을 만한 수치와 중국에서의 확산을 조사한 유명한 과학저널인 <Science>에 발표된 역학자들의 조사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감염자의 약 85 %가 자신의 감염 사실을 알지도 못한체 양성으로 판정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망한 환자의 90 %는 70 세 이상, 50 %는 80 세 이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학적 사실을 정치적 의사결정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https://www.tagblatt.ch/leben/ostschweizer-infektiologe-pietro-vernazza-die-zahlen-zu-den-jungen-corona-virus-erkrankten-sind-irrefuehrend-ld.1206440

6. Hendrik Streeck 교수는 Bonn 대학의 바이러스학 교수이자 바이러스 및 HIV 연구소의 소장입니다.

2020 년 3 월 16 일에 그가 한 말:

전형적인 코로나 19 환자는 원래 가벼운 증상만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또한 대도시 심천(Shenzhen)에서 실시한 중국 연구의 결과로, 감염된 환자의 91 %가 건조하고 과민한 기침 및 열이 있는 경증에서 중등도의 증상만을 나타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본 바로는, 냄새와 맛의 손실도 나타났습니다. 30 %의 경우 우리의 감염된 사람들은 설사도 경험했는데 이는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빈번합니다.

이 새로운 병원체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으며, 사실 Sars-1 보다 훨씬 덜 위험합니다.

[독일의 사망률이 이탈리아보다 낮다]는 사실에 나는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매우 심각한 환자에 대해서만 검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심천(Shenzhen)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어린이는 성인만큼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지만 가벼운 증상만 있거나 전혀 증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ttps://www.faz.net/aktuell/gesellschaft/gesundheit/coronavirus/neue-corona-symptome-entdeckt-virologe-hendrik-streeck-zum-virus-16681450.html?printPagedArticle=true#pageIndex_2

7. Pablo Goldschmidt 박사는 열대성 질환을 전문으로 하는 아르헨티나-프랑스의 바이러스 학자이며 파리의 University-Pierre et Marie Curie 에서 분자약리학 교수입니다.

2020 년 3 월 9 일에 그가 한 말:

> 미디어와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퍼져나가는 국제 전문가들의 근거없는 의견들은 이전에 경험했던 불필요한 패닉을 되풀이 하게 합니다. 2019 년 중국에서 확인된 코로나 바이러스는 강한 감기나 독감 정도의 증상을 일으켰으며, 우리가 알고 있는 감기나 독감과 현재까지 차이가 없습니다.
>
> 호흡기 바이러스 상태는 다양하며 여러 바이러스계와 종에 의해 발생합니다. 올해 초 중국에서 발견된 코로나 19 감염으로 인해 세계적인 건강경보가 발령된 것은 놀라운 일인데, 매년 폐렴으로 세계에서 신생아 300 만 명과 미국에서 5 만 명의 성인이 사망해도 전혀 경보가 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면 그러합니다.
>
> 우리의 행성 지구는 실험실에서의 분자진단분석 결과에만 기초하여 전문가들이 야기하는 새로운 사회적 현상, 과학적 매체의 괴롭힘의 희생자입니다.
>
> 2019 코로나 바이러스가 호흡기 아데노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지난 몇 년간의 코로나 바이러스 또는 일반감기의 원인이 되는 리노바이러스보다 치명적이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https://www.clarin.com/buena-vida/coronavirus-panico-injustificado-dice-virologo-argentino-francia_0_yVcmJ4RM.html

8. 증거기반의학 독일 네트워크 (German Network for Evidence-Based Medicine)는 독일 과학자, 연구원 및 의료 전문가들의 단체입니다.

그들이 2020 년 4 월 15 일에 한 말:

대부분의 경우 코로나 19 는 경미한 감기 형태를 취하거나 증상이 없습니다. 따라서 빠짐없이 기록되는 사망자들과는 달리 빠짐없이 감염자들이 기록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이로 인해 질환치명률이 과대평가됩니다.

우한에서 대피한 565 명의 일본인 (증상과 상관없이 전원이 검사를 받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현재 시행 중인 증상중심 코로나 19 모니터링으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실제감염자의 9.2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실제 감염자의 수가 등록된 감염자의 수보다 약 10 배나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19 의 질환치명률은 현재 측정된 것의 약 10 분의 1 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혹자는 보고되지 않은 감염자가 훨씬 더 많다고 가정하는데, 그렇다면 질환치명률은 더욱 낮아집니다.

독일에서 현재 측정된 0.2 %의 질환치명률은 로버트 코흐 인스티튜트 (RKI)에서 계산한 인플루엔자 질환치명률인 2017/18 년의 0.5 %, 2018/19 년의 0.4 %보다 낮고, 믿을만한 증거가 없지만 널리 인정되고 있는 0.1 % 보다는 높습니다.

https://www.ebm-netzwerk.de/de/veroeffentlichungen/covid-19

9. Klaus Püschel 박사는 독일 법의학 병리학자이자 함부르크대학의 University Medical Center Hamburg-Eppendorf 의 법의학연구소 소장입니다.

그가 2020 년 4 월 3 일에 한 말:

이 바이러스는 우리의 삶에 지나치게 과도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바이러스가 주는 실제 위험과는 전혀 걸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천문학적인 경제적 피해는 이 바이러스가 야기하는 실제 위험에 전혀 상응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19 사망률이 연간 사망률의 최고점으로 표시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조사한 모든 사망자들은 만성 폐질환인 암에 걸렸거나 골초였거나 비만이 심했거나 당뇨병을 앓고 있거나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 코로나바이러스는 소위 낙타의 허리를 부러뜨린 마지막 지푸라기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코로나 19 는 이렇게 예외적인 경우에만 치명적인 질병이고 대부분의 경우 무해한 바이러스성 감염입니다.

https://www.pressreader.com/germany/hamburger-morgenpost/20200403/281487868456736

10. Claus Köhnlein 박사는 Kiel 에서 활동하는 독일인 내과의사이며 Virus Mania 라는 책의 공동 저자입니다.

2020 년 3 월 21 일에 그가 한 말: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는 잘못된 양성반응이 프로그래밍된 PCR (유전자 증폭) 기반 검사입니다.

[양성 반응]의 절반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PCR (유전자 증폭) 검사는 종종 잘못된 양성 반응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베를린의 Gigerenzer 교수에게 이 문제 영역에 대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 검사는 매우 민감합니다. 어떤 것의 분자가 하나만 있어도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환자가 아프다거나 코로나바이러스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분리되어 검사된 것도 아니지만 사람들은 이 검사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저는 임상의인데 어떤 새로운 질병도 최근에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이 검사를 없애버리면 삶은 예전처럼 흘러갈 것이고, 신경쓰야할 특별한 것도 없을 것입니다.

https://pressecop24.com/corona-die-epidemie-die-nie-da-war-dr-med-claus-koehnlein-dfp-69/